

## 지 자 체 소 식

### ■ 대구시, 첨단산업단지 매출 1조원시대 열어

대구 첨단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의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대구의 대표적인 첨단산업단지인 성서3차단지 입주업체들의 지난해 매출액이 1조원을 돌파하는 등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어 첨단산업이 대구경제의 새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 최초 첨단산업단지인 성서 3차단지의 입주기업 11개사의 지난해 전체 매출이 1조 256억원을 기록하는 등 본격적인 매출 “1조원”시대를 열었다.

특히, 성서 3차단지 입주업체들의 매출은 지난 2003년 3,874억원에서 2004년 7,607억원으로 급성장한데 이어 지난해 전체 매출액이 1조원을 돌파하는 등 해마다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업체별로는 성서 3차단지의 대표주자인 회성전자(주)의 경우 지난 2004년보다 2,598억원이 늘어난 9,218억원을 기록했다. LCD생산업체인 이 회사는 2003년 3,183억원, 지난 2004년 6,620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이 같은 성과를 거둬 올해는 회성전자 개별업체 매출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또, 디스플레이 자동반송장치를 생산하는 (주)유니빅도 2004년 보다 30%정도 늘어난 323억원을 달성해 꾸준한 매출 성장세를 유지했고, 블랭크마스크를 생산하는 (주)에스엔에스텍 역시 지난 2004년(130억원)보다 55%나 증가한 202억원을 달성하였다.

특히, 이들 기업들이 어려운 내수경기를 아랑곳 않고 이처럼 급성장한 것은 매출 대부분을 해외시장에서 거둬어들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성서3차단지 입주업체들의 수출은 전체 매출액의 87%인 8,988억원으로 지난 2004년(75.8%)보다 수출 비중이 더욱 늘어나는 등 해외시장에서 굳건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성서3차단지 입주업체 가운데 (주)에스엔에스텍과 (주)신안SNP, (주)메트로닉스 등 일부기업들은 코스닥 진출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 ■ 울산시,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추진

울산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저녹스 버너 설치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울산시는 오존 발생의 대표적 물질인 대기중 질소산화물 감소를 위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질소산화물 저감 시설인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사업장 배출가스 저감에 대하여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자가 스스로 저감하여 왔으나, 이번 저녹스(NOX) 버너 설치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장을 우선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계획에 따르면 시는 국비 등 총 11억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중소기업 24개 사업장에 1대의 저녹스 버너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중소기업 사업장의 10톤 미만의 보일러를 대상으로 설치 소요자금의 65%, 최대 3,900만원까지 지원된다. 나머지는 융자 20%, 자부담 15% 이다.

저녹스 버너는 그간 대형 사업장 위주로 설치해온 질소산화물 제거시설인 탈질시설(SCR : 선택적촉매환원)과 비교하면, 설치비는 탈질시설(SCR)이 30~40억원, 운영비는 연간 3~4천만원이 소요되는데 비해 설치비 5~6천만원이며 운영비는 없다.

울산시는 앞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장에 대하여 규제정책과 지원정책이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2006~2007년간 시범사업 실시 후 성과평가를 토대로 2008년 이후의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저녹스 버너는 연소영역의 산소농도와 화염온도를 조절하여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시스템이다.

### ■ 전남도,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추진

자연생태가 우수한 지역을 관광자원화 하는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 사업'이 올해 순천시 등 도내 6개 시군 8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전남도는 올해 순천 광천수변 휴양지개발 등 도내 6개 시군 8개소를 대상으로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 계속사업과 신규 사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국비 51억원과 시군비 36억원 등 모두 87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량 가운데 곡성 생태농촌체험학습장 조성, 함평 대동계 생태관광단지 조성, 장흥 약다산 생태체험 공원조성, 완도 천지두 자연생태공원조성 등 4건은 올해 신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그런데 도는 지난 2003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민자유치 등을 통해 모두 1074억원을 확보, 담양군 등 8개 시군 10개소에 대한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왔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 모두 248억원을 투입, 곡성 기차마을조성 등 5개소에 대한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벌여 1개소는 완공했고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선 사업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다.

이와 병행해 도는 '관광지 전주 지중화 시범 사업'도 추진키로 계획하고 총 24억원을 확보해 이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이에 따라 관광객이 많고 자연생태 환경 위주로 개발 가능한 곳 2개소를 선정, 조기 착공해 나갈 계획이다.

### ■ 제주시, 성공적 추진을 위한 「숲다운 숲」 조성

도에서는 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발맞추어 제주도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여주기 위하여 「숲다운 숲」 조성사업을 추진키로 하였다.

본사업은 제4차기 지역산림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하여 금년도에는 나무심기 및 나무가꾸기사업으로 국비 1,430백만원, 지방비 1,570 등 총 3,000백만원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첫째, 도시숲 조성에 1,125백만원(5ha), 가로수조성 325백만원(4km, 400본)이 투입하게 된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급속한 도시개발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녹색공간 부족으로 도시숲에 대한 도시민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가로수를 연결축으로 한 도시생태계 기능강화를 위하여 녹색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가로수 조성은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쾌적하고 안정된 이동공간 확보를 위하여 도로 신설시에는 반드시 가로수 조성을 의무화하여 도로의 설계에서부터 가로수 식재공간을 확보하게 되며, 조성관리 계획을 5년단위로 수립, 관련자료를 DB화하여 체계적으로 조성 관리하게 된다.

둘째, 지역특성에 맞는 조림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제수 조림과 큰나무 공익조림으로 94ha(222천본)에 703백만원이 투입된다.

산지조림은 경제수로 지역특색에 적합하고 경제적 활용가치가 높고 산주가 원하는 수종을 사전 양묘 한 후 조림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수리나무 130천본(26ha), 느티나무 3천본(1ha)가 식재된다. 큰나무공익조림은 도시마을 도로변 공한지, 관광지, 등 생활권 주변 지역특색 향토수 및 경관림조성을 59천본(57ha)이 식재된다.

또한 60~70년대 녹화기에 황폐지 복구 및 연료림등으로 식재된 리기다 소나무가 병해충 피해로 쇠퇴하고 있어 이들 임지에 대하여 수종 갱신 10ha에 대하여는 적지적수를 감안하여 산주 희망수종을 선정하여 갱신조림을 실시하게 된다.

## 지자체 소식

셋째, 생태·환경적으로 건정하고 각종 재해에 강하며, 경제적 활용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숲가꾸기사업을 617ha에 847백만원이 투입되어 실시된다.

### ■ 충청북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본격시행

충청북도에서는 금강상류인 미호천, 무심천의 수질개선을 통해 향후 건설될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맑고 깨끗한 행복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과학적 토대 위에서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단위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목표수질이 달성될 수 있는 허용 부하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로써 충청북도는 지난 '04. 2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2004. 11월 『충청북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후 '05. 4. 1일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06년 오염총량관리 시행대상 지역인 청주시와 청원군은 미호천 본류와 무심천에 대한 2010년까지의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금번 계획에는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개선, 하수관거 개량·확충 등 각종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대책을 수립키로 하였다. 그리고 '08. 8월부터 시행대상지역인 증평, 진천, 괴산, 음성군 등 4개군은 미호천 유역에 일부 지역만이 포함되어 있어, 각군별로 시행계획을 수립 할 경우 유역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짐은 물론 별도 시행에 따른 용역비의 과다소요 등이 예상되어 충청북도에서는 4개 군간에 협의의 조정을 통하여 협약을 체결토록하고 시행계획수립 주관군을 선정 추진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역관리 뿐만 아니라 용역비 약 160백만원을 절감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충청북도에서는 제1차 오염총량관리기간(2006~2010)중 하수처리장 건설 5개소(청원 내수, 증

평, 진천 이월·덕산, 음성 대소), 고도처리 시설개선 2개소(청주, 진천), 하수관거 확충 120km, 축산폐수처리 시설개선 1개소(청원 내수) 등에 1,200억원을 투입하여 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충청북도는 제1차 총량관리기간(2010년 까지) 이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여 2차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 2011년부터 2015년까지(5개년) 지속적인 총량관리제를 시행키로 하였는데 이는 충청북도가 수질개선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지정, 수변구역지정 등의 사전오염 예방정책과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젖줄인 미호천 수질을 BOD기준 현재 6.5mg/l 에서 2010년 이후에는 4mg/l 이하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 ■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실태 인터넷 실시간 공개

서울시는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혐오시설로만 알려진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실태를 지난 2월 15일부터 홈페이지(rrf.seoul.go.kr)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시민들이 자원회수시설에 대해 가지는 막연한 불안감과 혐오감을 적극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다.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는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양천, 노원, 강남, 마포 등 4개 자원회수시설이 해당되며 자원회수시설과 소각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와 함께 쓰레기 소각 처리공정 및 소각량·가동율 등 시설의 구체적인 운영실태와 쓰레기 소각처리를 반대하는 주요 이유인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의 측정결과와 환경상영향조사 및 주변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결과 등을 공개한다.

특히, 굴뚝자동측정시스템(TMS)를 통해 먼지, 황산화물(SO<sub>2</sub>), 염화수소(HCl),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등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측정결과를 공개하여 자원회수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시민들이 직접 느끼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시민참여마당과 시설의 공개견학을 위한 예약

시스템 등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직접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홈페이지 개설로 쓰레기 소각시설이 시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로 자리 매김되고, 시민들의 인식을 새롭게 전환시킴으로써 경기도·인천시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의 활용기간의 한계성과 새로운 매립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등 폐기물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강원도, 원주환경청 최우수기관에 선정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변주대)이 환경부가 전국 8개 지방환경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5년 업무실적 평가에서 2004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원주환경청은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창의적이고 사전예방적인 환경행정을 펼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수립 단계에서 환경적 측면의 입지 가능여부를 미리 검토, 협의시 부동의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한 '개발사업 입지 사전상담제' 도입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동강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매수토지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과 환경성검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수해복구공사에 대해 '약식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방안' 마련이 지역 주민과의 갈등해소 및 하천생태계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라는 평가이다.

또한 대암산 용늪의 생태복원사업 추진과 습지, 석호, 해안사구 및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보전가치가 높은 생태계의 연구 및 보전대책 마련이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행정방향이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평창, 횡성 등 펜션 밀집지역의 오수처리시설 관리대책 수립, 관리가 소홀했던 간이오수처리시설의

마을하수도 전환요구 등이 신선한 발상으로 평가를 받았으며 도로법면의 경관복원 우수사례 조사발표, 야생동물 로드킬 방지대책 마련 등은 창의적인 환경행정 구현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업무실적평가는 교수, 민간단체, 대표, 기업체 환경 CEO 등 16명으로 구성된 '환경부자체평가위원회'에서 지난 1년 동안 8개 지방청에서 수행한 주요정책과제를 목표의 적합성, 시행과정의 효율성, 목표의 달성도 등 6개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 평가했다.

### ■ 경남, 전국최고 자전거 시범도시

경남 진주시는 2003년 4월 7일 자전거 시범도시 지정이후 현재까지 자전거도로 53km를 정비 완료한데 이어 전국 최초로 시내와 도동을 연결하는 자전거 전용 교량을 완공하고 지난 2월 15일부터 전면 개통에 들어갔다.

시는 그동안 3개년에 걸쳐 사업비 70여억 원을 투입해 진양호 매표소에서부터 망경동, 칠암동, 강남동, 가좌동을 잇는 자전거 전용도로 13km를 비롯하여 시내 전역을 연결하는 53km의 전용도로를 정비 완료한데 이어 이번에 진양교 하부 남강제방에서 상평동 학생 실내수영장앞 북개도로를 연결하는 길이 110m 폭 3.2m의 자전거 전용교량을 15억7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준공하고 개통에 들어간 것이다. 시의 자전거 도로망은 평거, 칠암동 등 서부지역에서 학교 밀집 지역인 도동으로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등 원거리 운행에 따른 불편한 부분이 있었으나 이번에 자전거 전용교량의 개통으로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어 자전거 이용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경도시의 이미지와 건전한 여가생활의 활용뿐 아니라 에너지 소비의 감소로 가계 부담이 줄어들고 자전거 타기가 생활 운동으로 자리 매김해 교통난 해소는 물론 시민건강 증진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